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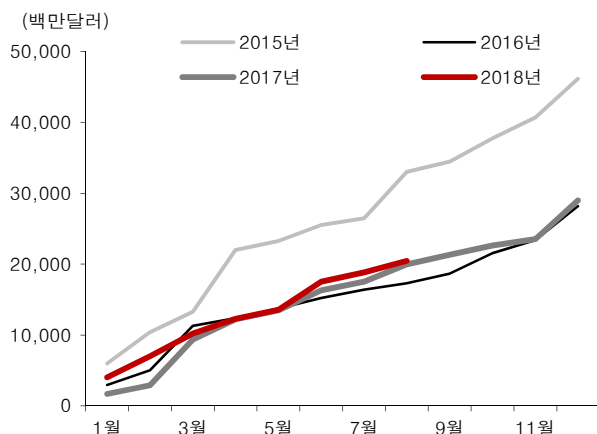
Issue Comment

- ✓ 8월 해외 수주 누계 +2.3% YoY
- ✓ 가이던스 대비 달성률은 33.5%로 높지는 않음
- ✓ 연말~내년 수주 감안, 대형 건설주 비중확대 의견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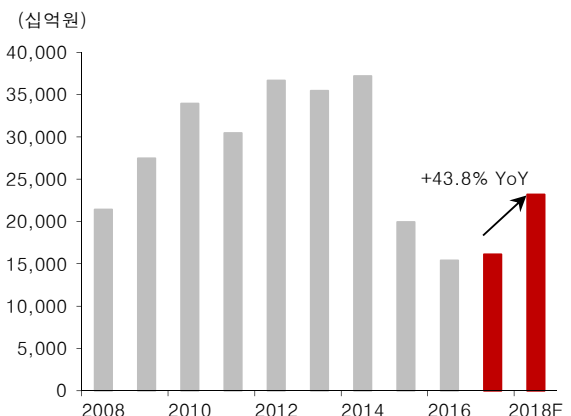
[건설] 8월 해외 수주 점검

- 해외건설협회 기준 8월 해외 수주는 16억달러, 8개월 누계로는 20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.3%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음. 전년동기의 경우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서 포스코 건설이 일본 스미토모 상사와 토목, 부대설비 등의 공사 9,500억원 수주, 현대건설이 같은 프로젝트에서 항로 준설 공사로 6,700억원을 수주한 영향이 큼
- 대형 건설사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 3.7조원, 현대건설 (연결기준) 2.7조원, GS건설 1조원, 대우건설 5천억원, 대림산업 350억원 수준임. 합산 기준으로는 가이던스 대비 33.5%의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, 주요 프로젝트의 낙찰 결과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임. 일부 건설사의 가이던스 달성을 위한 굵직한 프로젝트의 수주가 필요한 점을 제외하고, 각 사별 가이던스를 합산하면 연말까지 해외 수주는 지난해 대비 43.8% 증가하게 됨
- 국내외 플랜트 발주가 증가할 주요 요인으로는 1) 주요 발주처인 중동, 특히 사우디와 UAE의 공격적인 생산 설비 투자 기조 확대, 2) 국내외 에너지 업체들의 신증설 확대로 꼽을 수 있음. 연말~내년까지 낙찰될 수주 결과를 기대한다면, 대형 건설주는 현 주가 수준에서 여전히 비중 확대 (OVERWEIGHT) 의견 유지

국내 건설사 월별 해외 수주 누계



대형 건설사 신규 수주 추이 및 전망



자료: 해외건설협회, SK 증권

자료: 각 사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